

펫신탁을 아시나요?!

Vol.8





시니어와 '펫신탁'

2017년도 고양이 두 마리가 약 3억6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상속받았다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자신이 키우던 두 마리 고양이에게 88세 나이로 숨진 미국 여성이 약 30만 달러를 상속했다는 기사가 뉴욕포스트에 실려서 미국에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할머니가 애지중지 키우던 반려동물에게 37억원을 남겼습니다. 연락두절이 된 자녀들보다 자신의 곁을 지켜 준 반려동물에게 남은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생소한 펫신탁 사례가 해외에서는 빈번하지는 않지만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조만간 새로운 문화로 정착할 수 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펫신탁은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돌보고 있는 주인이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사망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돌보지 못할 때를 대비한 신탁으로 일종의 금융상품입니다.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신탁자가 됩니다. 신탁자에게 신변상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반려동물 돌봄이 어려울 때, 새롭게 돌봐 줄 주인을 수탁자로 하여 반려동물 양육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현재 주인의 자산을 체결하는 신탁계약으로 일명 '반려동물신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개념의 펫신탁이 선진국에서 화두가 된 지 꽤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이 시니어세대에 국한된 개념은 아니지만 펫신탁의 중심에는 시니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인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의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는 반려동물을 늘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기 위해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도 부터 사용했지만, 국제적으로는 1983년 동물학자 콘라트 로렌츠(Konrad Lorenz)가 제안한 것이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해 왔던 '애완동물(愛玩動物)'과는 개념적 차이가 있습니다. 애완동물은 인간의 소유적 개념에서 비롯된 귀여워하거나 즐기는 행동을 의미한다면, '반려동물'은 동물과 인간을 대등한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며 느껴 왔던 정서적 교감의 빈공간을 반려동물이 채워주고 있고, 그 비중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애완동물 대신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더 친근감이 갑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가족과 동일한 반열에서 바라보는 반려인들이 늘어나면서 '펫팸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시니어 비즈니스에서 유의 깊게 바라봐야 할 부분입니다. 🐾



반려동물의 증가 원인

사회적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반려동물이 정서적 교감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다는 것은 반려인 10명 중 8명 이상이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고 있다는 의식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입양 가구가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팬데믹 이전 가장 높은 입양율은 2017년도 8.8%였으나, 2020년 12.4%, 2021년 13.2%, 2022년 18.4%로 2019년 이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¹⁾ 다만, 강아지와 고양이 증가는 주춤하는 대신, 램스터 · 토끼 · 파충류와 같은 소동물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반려동물 시장을 확장시키면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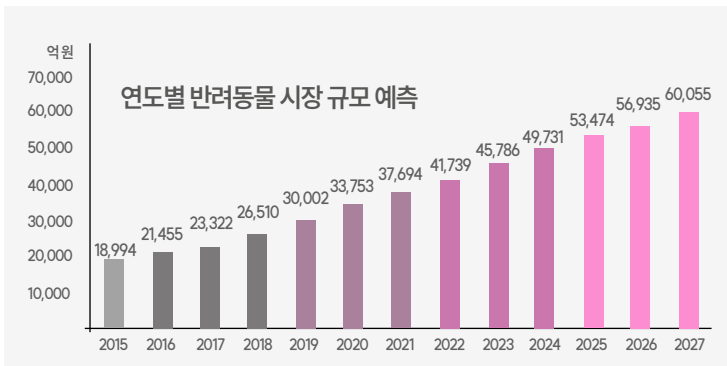
반려동물 확산은 고령층의 1인 가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고독감과 외로움이 1인 가구가 되면서 더 가중되어 반려동물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찾는 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일본처럼 일부 선진국에서는 고령자가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사료비를 지원하는 등 건강지킴이로서 사회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사료비 지원에는 매일 일정시간 이상 산책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차원도 있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고령층이 움직임으로써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부담인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일본에는 반려견을 키우는 주인의 고령화로 매일 산책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반려견 산책을 대신해 주는 직업도 생겨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반려동물과 연관된 산업이 지속적으로 창직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1)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2023. 6). 황원경, 이신애.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반려동물 증가와 관련산업 성장

우리나라 반려동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가구는 조사하는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만, 반려동물은 아직까지 100%등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말 반려가구로 KB금융지주경제연구소는 552만²⁾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에서 전체 세대수 대비 25.4%에 해당하는 602만 세대라고 밝혔습니다.³⁾ 분명한 것은 매년 반려동물 가구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려동물의 빠른 증가는 반려동물 동반 전세기 · 반려동물 유모차 · 강아지 유치원 · 발 마사지기 · 자동 이발기 등 반려동물과 연관적 이색적인 제품에서부터 다양한 서비스 출시로 이어지면서 관련 산업이 블루오션이 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와 같은 새로운 직업도 창직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3년도 반려동물 시장이 4.5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으며, 4년 후인 2027년도에는 6조원 규모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매년 두 자리수로 증가 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9.7%로 예상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4). 농업전망 2024: 불확실성시대의 농업 · 농촌, 도전과 미래

2)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2023.6). 황원경, 이신애.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3) 농업전망 2024(1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 · 농촌, 도전과 미래(202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8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발표

반려동물은 단순히 수요 공급 시장 원리에 의해서만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도부터 '동물보호법'이 '동물복지법'으로 개편되면서 동물 생애 주기 관점에 맞춰 동물 복지를 더 강화하는 등 정부 주요 정책의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가축'에서 '반려' 개념으로 사회적 문화가 한 단계 성숙되면서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8월에 펫푸드, 펫헬스케어 등 4대 부문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사료 · 진료 · 장묘 · 용품 · 보험 등 반려동물의 양육과 연관된 산업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펫푸드, 펫헬스케어(동물용의약품, 동물의료, 펫보험 등), 펫서비스(돌봄, 교육훈련, 장묘 등), 펫테크(자동화 스마트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등) 등 4대 주력산업으로 분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는 세계 시장 대비 1.6% 수준으로 약 8조원 수준입니다. 4.5조원의 반려동물에 국한된 시장의 약 2배 수준입니다. 프랑스와 미국은 로얄캐닌(Royal Canin) 펫센터를, 중국은 대규모 생산(저장성)과 산업 육성(산동성), 연구 창업(허난성) 단지를 조성할 만큼 연관산업 발전에 필요한 제도를 신설하고 R&D와 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장묘업, 운송, 식당 등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제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이나 신설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 전용 제품,서비스의 고급화 추세

스파, 반려동물 여행 서비스, 브러싱, 스마트 장난감, 휴대용 추적기, GPS 추적기 등 반려동물 전용 제품과 서비스가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2005년 20.0% → 2022년 34.5%)와 가파른 고령화(2005년 9.3% → 2022년 18.1%)는 반려동물 양육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가축'에서 '반려'로 동물 지위가 상승한 것도 반려동물 연관산업 수요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고급화에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제품이 종전에는 단순히 사료와 용품 등 일상적인 것에 한정되었으나, 생명공학(BT)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으로 고급화로 변신하면서 관련 산업의 몸집이 커졌을 뿐 아니라, 높은 고부가가치의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의하면 4대 분야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파트는 펫테크 시장이지만, 규모는 약 1천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아직 내수시장 중심의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다양한 관점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펫푸드도 그 중 한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그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생명공학과 정보통신기술 등의 기술 혁신, 펫휴머니제이션(Pet-Humanization) 등장 등에 따라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정서적 빈 공간을 채워주면서 사람 곁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반려동물 가구수와 반려동물 수명 증가, 반려동물 제품과 서비스의 고급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 신설 등 정부정책의 뒷받침 등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밝게 바라볼 수 있는 마중물이기도 합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시니어에 한정된 비즈니스는 아닙니다. 다만, 펫신탁과 같이 재정적 여유와 함께 외로움과 고독감과 같은 감성적 결핍을 채워준다는 의미에서 눈여겨 볼 만한 사업이라는 의미에서 다뤄봤습니다. 🐾



박창동

KMA 시니어랩 전문위원
(인적자원개발학 박사)

KMA 시니어랩

초고령시대를 앞둔 우리나라의 시니어 대상 경력개발사업, 시니어 대상 정책 및 비즈니스를 개척하려는 조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행합니다.